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金 一個月 壹圓 ... 廣告料 五號活字一行 ... 發行所 朝鮮日報社

論說 米佛의 戰債問題

一

世界大戰은 一千九百十九年六月二十八日의 平和條約調印으로 因하야 一段落을 告하엿섯스나 그后에 여러가지 問題는 緊急한 解決을 기다리고 잇섯다 참으로 大戰을 善後하려면 爲先聯合國側과 獨逸과의 賠償金問題를 解決하여야 되게 되엿다 그리하야 一千九百二十一年五月에 聯合國의 最後通牒에 依하야 獨逸은 一千三百二十億金馬克(約六百六十億圓)의 賠償金을 負擔하게 되엿스나 그것이 實行的案으로 볼수는 업섯다 오래동안 問題가 매우 錯亂하게 되엿다가 一千九百二十四年八月十六日의 倫敦協定에 依하야「도스」案이 實行되게 되엿슴으로 獨逸과 聯合國間의 賠償金問題는 解決되게 되고 또 昨一千九百二十五年十月十六日의「로카르노」條約에 依하야 獨逸과 聯合國間의 政治問題도 解決되게 되엿다

二

獨逸과 聯合國間의 賠償金問題와 政治問題는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解決되엿스나 聯合國相互間의 問題가 남어잇섯스니 이것이 戰債問題이라는 것이다 이 戰債問題는 米國을 債權國으로하고 對獨與諸國을 債務國으로 하는 問題이니 그中에도 米佛間의 戰債問題가 가장 困難한것이 엿다 그것이 最近에와서 協定案이 成立되게되엿다 四月二十九日의 華盛頓에 佛大使「베렌지」氏와 米國戰時債務委員間에 同日에 佛國戰債償却協定案이 成立되엿다는것을 來報하엿다 그 條件의 內容은 外電의 報道하는바에 依하면 償却期間이 六十二個年이요 償却總額이 六十八億四千七百萬弗(約一百三十六億九千四百萬圓)이요 年支拂額이 三千萬弗乃至一億二千五百萬弗이요 利子는 償還開始後五年으로부터 始하야 初期十個年間一分으로부터 漸次累進하야 最後의 二十七個年間은 三分五厘로하기로하엿다

三

五月一日에와서는 또「유-고슬라비아」國과 米國間의 戰債協定이 成立되고 昨年에 協定된 白耳義「로마니아」「에스트니아」의 對米整理案은 五月二日에 大統領「쿨릿지」氏의 署名을 어더 効力을 發生하게되엿다 그러면 米國에 對한 戰債를 解決하지못한 나라는 希臘과 露西亞 가잇슬뿐이다 그러나 露西亞에서는 原則上 戰債를 否認하는터이요 希臘의 戰債問題는 些少한것인故로 世界大戰으로 因하야 發生한 戰債問題는 다 解決이되엿다고 볼수잇는것이다 이와가티하야 表面上으로 하야 보면 世界大戰으로 因하야 發生한 問題는 모도다 解決을 告한것으로 볼수잇다 그러나 內面的으로 觀察할때에 果然 此等의 解決案은 그대로 잘 履行되게 될것인가? 모든 問題는 姑舍하고 今番에 成立된 米佛의 戰債協定만 보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實行될가 하는것은 크게 疑問으로 하지아니치 못할바잇다 佛國은 米國에 對한 六十八億四千七百萬弗外에 對英債務六億二千三百萬磅(約三十億二千萬弗)이 잇스니 獨逸로부터의「도스」案에 依한 年額八千萬弗乃至一億七千萬弗이 잇다할지라도 果然 잘 그 對米協定을 實行할수잇슬가? 佛國은 大戰으로 因하야 그 國土의 三分一이 全部荒廢에 歸하야 그 復興에 莫大한 金額을 要하게되엿다 이러한 佛國이 債權者의 要求에 充實하게 應할수잇슬가? 戰債問題는 그러면 아직도 實質的으로는 解決되엿다고 보기 어려운바 잇다고하지아니할수업다

濠洲坑夫三萬 總罷業에 參加

原因은 賃銀의 減少

(메루본七日發) 英國의 總罷業이 益益深刻味를 加하는 此際 濠洲「뉴-ㅁ와우스、웰-르스」炭坑夫約三萬도 八日부터 罷業에 參加하기로 決定하얏다는바 此는 賃銀裁定局이 熟練勞働者의 賃銀을 減少한外닭이라하며 罷業은 遂히 全歐에 波及하얏더라

英總罷業에 對한 ◇米紙의 論評

米國에도 可能性이 有하다

(紐育七日發) 英國總罷業에 對하야 紐育「컴마-샬」紙는 左와 如히 論하더라 英國에는 遂히 革命이 宣言되얏다 叛逆目標는 政府自體인外닭이니 英國에 起하는것은 米國에도 起할 可能性이 有한則 米國民은 正히 覺醒을 要할 秋에 際會하얏다

英首相의 演說과 勞働機關紙의 反駁

(倫敦七日發) 「볼드윈」首相이 憲法政治의 根底에 對한 挑戰이라고 演說하얏슴에 對하야 勞働者側機關紙「부릿지쉬워커」는 勞働組合評議會는 憲法에 挑戰하는것이 아니요 但 其念慮할바는 炭坑夫를 爲하야 妥當한 生活程度를 確保코자 하는것뿐이다 評議會는 唯產業的抗爭을 하는것으로 憲法의 危機의 存在는 잇슬수 업는것이라 斷言하얏더라

協調는 絕望狀態

雙方態度가 極頑强

(紐育七日發) 英國總罷業本部는 七日政府가 至急罷業解決策을 講치안흐면 更히 二百萬의 勞働者에게 命令하야 總罷業에 參加케할 것을 聲明하얏다 一方罷業은 勞資雙方이 共히 依然反目中으로 何處이나 屈服하는 色이 無한바 政府側에서는 大體今回의 罷業을 革命으로 看做하야 如何한 價를 償하드라도 勞働者側을 屈服시키고자하는 外닭에 現在協調는 殆히 絕望狀態이더라

罷業本部의 聲明

(倫敦七日發) 英國總罷業本部는 本日內로 政府가 急히 罷業解決策을 講치안흐면 二百萬의 勞働者에게 命令하야 總罷業에 參加케할터이라고 聲明하얏더라

總罷業과 警備

(倫敦七日發) 七日夜陸軍省의 發表한바에 依하면 今回의 總罷業에 伴하야 緊急狀態의 宣布를 見하얏스나 警備力의 薄弱한 箇所에 備兵을 派한 外에는 尙今一般秩序를 爲하야 警察應援으로 軍隊派遣의 必要는 업다하엿더라(七日陸軍省發表)

丁抹勞組도 動搖

英罷業을 援助코자

(코펜하-겐七日發) 丁抹勞働組合執行委員會는 本日「코」市聯合會에 對하야 英國總罷業을 援助하는 意味의 罷業을 開始하라 한다는 豫備的通告를 發하얏더라

鹹首當한 職工을 爲하야 三千職工同情罷業

內外綿工又復動搖

(上海八日發) 內外綿第十五工場이 過般不良職工十二名을 鹹首한 外닭에 同工場職工三千은 七日부터 同情罷業을 開始하야 更히 他工場에 外지 擴大될 模樣인데 又中國紡績의 三滿紡績에서도 六日來職工半數가 罷業을 開始하얏더라

顧氏의 北京入은 李內閣을 樹立코자

(北京八日發) 顧維鈞氏는 本日天津에 赴하얏는데 用件은 顏惠慶內閣의 後에 李景林內閣을 樹立코자 勸說하라함이니 即直隸派는 李景林氏와 提携하야 奉天派의 了解를 得하고자 함과 如한바 李는 本問題에 就하야 極히 消極的態度를 持하는中이더라

顏氏組閣을 躊躇

奉派에 對한 操心으로

(北京八日發) 顏惠慶氏는 奉天派에 對한 操心으로부터 組閣을 躊躇하며 李景林內閣도 可能性이 少한터인데 顏、李兩氏가 共히 組閣을 拒絕하면 顧維鈞內閣이 出現하리라더라

大陸直通의 圖們江大鐵橋

七月中着手

圖們鐵道와 天圖輕鐵과의 連絡은 假橋를 架設하고「도롯고」로써 貨物을 輸送하더니 假橋가 腐朽하엿기 때문에 飯田延太郎氏는 鈴木間島總領事의 紹介로 吉林省長과 國際河川인 豆滿江上에 三十萬圓의 經費로써 千呎의 鋼鐵橋式狹軌單線鐵橋를 架設하랴고 交涉中이더니 交涉은 其後順調로 進陟되여 最後의 調印外지되여 七月中에는 工事에 着手할터이라는데 이 鐵橋가 完成되면 鴨綠江鐵橋와 相對하야 大陸을 直通하는 大幹線이 北鮮에 實現되리라 하며 鐵道局에도 約半額의 補助를 申請中이라한다 尙히 이 線路는 將來吉會線이 開通되면 廣軌도 改造할터이라더라

電報用件類別

遞信局에서는 最近五日間의 取扱한 普通電報의 實際에 就하야 用件類別의 調査를 行하엿는데 此에 依하면 一般商事用電報가 最多數를 占하야 總通數의 四割에 達하고 次에는 人事用이 三割一分 銀行會社事務用이 二割三分 官公署事務用이 五分의 割合인데 商事用電報에 就하야는 日本人發이 八割 朝鮮人發이 一割九分 外國人發이 一分이오 銀行會社事務用은 日本人發이 九割 朝鮮人發이 一分이오 人事用은 日本人發이 六割八分 朝鮮人發이 三割一分 外國人發이 一分의 割合이더라

元山電料 八割主張强硬

期成會委員會에서

元山電料引下期成會委員會는 旣報와 가티 去六日午後八時부터 仲町公會堂에서 開하고 本同會長으로부터 去四日午後一時商議所에서 會社側幹部와 會見한 結果 三錢以上의 値下는 會社의 營業을 危險케 만드는 것임으로 到底히 引下는 不可能이라는 會社側 聲明을 傳한즉 場內는 刻一刻 緊張해지며 持久戰을 何時外지 해보자는 等의 怒聲이 잇섯고 市民大會의 開催는 七日에 開하고자 하엿스나 純宗皇帝昇遐에 對하야 半島國民은 奉悼할이오 더구나 警察은 屋外集會를 禁止함으로 不得已 各個町마다 實行委員이 需用者에게 二通의 調印을 바더 來十二日外지 收集한 後 一通은 會社에 一通은 監督官廳인 遞信局에 送附하기로하고 對抗策으로

一、需用者는 一齊히 減燈을 斷行하야 十燈의 者는 八燈 七燈五燈의 者는 三燈二燈으로 할일

一、電氣料二割을 保留하고 八割을 支拂하야 二割은 適當의 方法으로 供託하고 同社에는 八割만을 支拂할일

一、各戶의 門燈을 廢止할일

又左와 가튼 議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同夜午前零時半에 散會하엿더라

一、元山電氣會社 電燈料는 高率인즉 現在料金의 八割이 相當하다고 認함에 依하야 今後는 會社가 電燈을 供給하는 境遇는 其願에서 供給을 바들일

二、前項의 目的을 達成키 爲하야 各自自有하야 可成的 點燈의 二割以上을 減할일

三、第一項의 收集이 完結한 同時에 電燈會社에 此를 通告實行을 期할일(元山)

元山青年會 委員制로 變更

六日幹部會에서

元山靑年會에서는 去六日下午八時부터 元山靑年會樓上에서 幹部會를 金相劤氏司會로 開하고 從來의 會長制를 委員制로 變更하기로 하고「모루히네」中毒者收容所建築費募集의 件을 決定한 後 一般委員을 選定한 結果 左와 갓다고

委員 趙鍾九 金景俊 盧文麒 卓鳳實 姜勝喆 南忠熙 金鍾煥 金星 吳明善 尹滯俊 全均 趙和鑑 朴來華 李在春 安鍾殷 金容號 金楊根 李秀榮 金春實 金福山 韓君錫 洪鍾熙 林鍾均 金演鼓 金相劤

市街貫通 問題되든 京南線 安城市街通過線 變更言明

京南鐵道延長線이 安城市街中心을 貫通코자 計劃中임으로 安城市民一同은 여러가지 關係로 市街貫通을 積極的으로 反對하는 同時에 委員을 派送하야 各關係當局에 陳情하기로 하엿다 함은 旣報하얏거니와 이에 對하야 總督府鐵道局技師 寺田金司 京畿道土木課長 山岡敬介、水原土木管區主任 大西房太郎 京南會社技師長 竹內健吉氏가 去六日에 實地狀況을 調査코자 當地에 出張하엿는데 安城有志人士諸氏가 同日午後三時頃에 前記出張한 當局者諸氏를 安城郡廳內에서 會見하엿든바 寺田技師가「이와가티 市街中心을 通過함을 因하야 工事費約十萬圓이 增加되야 京南鐵道會社의 犧牲이 莫大하나 市民의 意思를 尊重히 하야 同會社에 命令하겟다」고 言明하엿다는데 前記線路가 市街中心을 貫通치 아니하고 安城川堤防北便으로 通過될뜻하다더라(安城)

道廳에도 委員을 派送

芦西未墾地事件으로 또

果報=慶興郡芦西面未墾地貸附問題에 對하야 蘆岩洞民들은 死活問題가 달린 큰일이라고 道番洞民代表二人을 上京케하야 總督府에 外지 陳情하엿거니와 極度의 不安과 鬱憤에 戰戰兢兢하는 洞民들은 上京委員들이 도라오기도 前에 또한 去二日 그洞內에서 順暉 金基岳 金昌述 兪見龍 等四氏를 選定하야 慶興郡廳에 陳情케하엿든바 前日郡當局에 와서 陳情하고 또한 其中 兪見龍氏는 道廳에 가서 陳情하려고 去三日連絡船으로 곳 出發하엿는데 張郡守는 蘆岩洞民들이 陳情한 顚末을 即時道에 報告하겟다고 言明하엿다더라(雄基)

陳情內容이 署長身分에 關聯

陳情者를 呼出面迫

近日에 巨濟運航株式會社의 重役들과 巨濟警察署長과의 間에는 船舶定員取締에 對하야 問題가 만타는데 이제 그 詳細를 듯건대 巨濟航運業은 統營에 잇는 會社와 巨濟에 잇는 運航會社가 競爭中인데 巨濟警察署에서는 巨濟會社에만 定員을 取締하고 統營會社는 取締치 아니한다하야 巨濟會社의 重役이 여러번 交涉한것에도 不拘하고 始終이 如一함으로 巨濟會社에서는 不得已하야 慶南道知事에게 陳情書를 提出하엿는데 그 陳情書가 巨濟警察署長에게 도라온바 陳情書中에 잇는 句絕의 文句가 署長의 身分에 關係되다고 署長은 巨濟會社社長及事務取締役諸氏를 警察署로 불러다가 말하되「君等이 나를 免職又는 減俸을 식힐 心算이 아니냐」고 咆哮하얏다더라(巨濟)

어린이紀念을 陰五月에擧行

木浦少年會決議

木浦勞働少年會에서는 지난六日下午八時에 本會館에서 任員會를 曺文煥君司會로 開하고 左記諸般事項을 討議決定後 正午十二時에 閉會하엿다고

△討議事項

一、會員募集에 關한件

一、教養에 關한件

一、全南少年聯盟에 關한件

一、其他

五月一日 어린이紀念은 陰五月一日에 追行할것(木浦)

分配不公質問

玉浦里民會의 決議

慶南巨濟島二運面事務所에서는 面內의 去年暴風雨로 被害된 罹災民의 狀況을 오래동안 調査하야 所謂救恤金을 分配하엿는바 同面玉浦里에서는 그 救恤金分配가 不公平하게 되엿다하야 去四月二十九日上午十時에 同里洞舍에서 里民會를 열고 委員을 選定하야 同面面長에게 그와 가티 不公平하게 分配한 理由를 質問하야 보기로 하엿다는데 그 選定된 委員은 如左하다더라

委員 韓成俠 潘聖律 外三人(巨濟)

同友會創立

安州有志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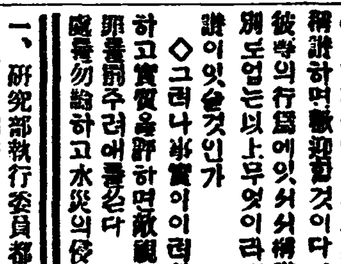
安州의 一部靑年은 當地에 아직 思想團體라고 認할 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생각하야 一般靑年을 網羅한 新進靑年修養團體로 지난六日夜 當地承傳俊家에서 同友會의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臨時議長 鄭勝鉉司會로 許炯의 經過報告와 規約通過 任員選擧의 順序로 議事를 畢한 後 同會에 入會承諾한 會員이 二十名이오 被選委員은 如左한데 議事가 長時間에 亙하야 其他의 未決事項은 委員會에 一任하고 閉會한바 委員會는 五月八日에 開會한다더라

△被選委員

一、庶務部執行委員 崔鳳鍊 崔承俊 玄奎弘

一、社會部執行委員 許炯 姜灣善 金龍奎 (安州)

一、研究部執行委員 都一鎬 崔應坤 柳深洙 同委員長 崔應球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松都面所에一言

◇給政者를 臨許하면 먼저 恐怖心이 한편에 잇다 그도 給政當局을 稱讚하며 歡迎할것이다 마는 事實 彼等의 行爲에 잇서서 稱讚할것이 別로 업는 以上 무엇이라 虛無한 稱讚이 잇슬것인가

◇그러나 事實이 이러함도 不計하고 實質을 評하면 敵視하고 업는 罪를 씨워주려 애를 쓴다 年前에 到處를 勿論하고 水災의 侵害를 當하게되엿다 그後 水害를 防하기 爲하야 當地池設里水道改修工事를 案에 걸고 工事에 着手케되엿다 그 水道工事는 一般民衆의 安逸을 爲하야 行한다 하고 當地松都面所에서는 自意대로 設計를 作成하야 가지고 一般民衆에게 如何한 報告도 업시 土木課에 그 設計대로 工事를 行하게 하엿다

◇그 設計대로 行하면 池設里川東側民은 害가 莫大하여짐으로 即時 東側民은 會合相議하야 決議案을 作成하야 當地面所에 陳願을 하엿다 그러나 當地面所에서는 八九個月에 至하도록 何等回答이 업슴으로 東側代表人은 再三督促한 結果 至今와서 總督府에서 行한 일이라고

◇面事務所라는 일을 ... 面의 일을 不顧하는 當局者여 그러면 松都面所는 무슨 所用으로 세워두고 無用한 費用을 支出하게 하는가 當地水道工事로 말하여도 一般民衆의 公公한 決議가 可하거든 지 自意로 大衆을 無視하는 面當局이여 생각하여 보라 日前에 來人이 印鑑을 내라 金을 待하라 하고 두時間後에 明日來하라 하니 이 무슨 行動이며 如何한 怪態도 不公平하게 定하니 事이오 面所當局者여 이러한 行爲를 無關히 私行하니 이 무슨 心情이고 以後覺悟하야 公正한 事務를 行하길 企望한다(不平生)

佛甲治道費 面民은 一分도 不應

面民大會의 決議대로

靈光水利組合의 附水池인 靈光郡佛甲面雙山里의 堤堰工事가 七割以上에 達하자 黃良川 佛甲川兩派의 물이 고이게되야 佛甲面金鷄放席自秘母岳四洞里를 橫斷하야 佛甲寺에 이르는 等外道路가 업서지게됨으로 居住人은 勿論 通行人들의 不平이 不少함으로 郡當局에서는 매우 苦心中이던바 이 機會를 利用하여 完全한 三等道路로 改修함이 得策이라하야 總工事費三千二百圓을 募集하게 되자 水利組合과 長門組(請負業者) 佛甲寺等 三個團體에서 一千四百圓의 寄附를 엇고 남어지 一千八百圓을 佛甲面民에게 負擔하기로 되엿다는데 이 말을 들은 一般面民은 크게 憤慨하야 지난 四月四日 同面立石市場에서 面民三百餘名이 모히어 姜大燁氏司會下에 正式으로 面民大會를 開하고 佛甲寺三等道路를 反對하는 同時에 例前等外道路만을 開通케하여 달라는 陳情을 第一回 郡 第二回 道 第三回 總督府外지 하기로 交涉委員 梁圭鉉氏外十七人을 選定하엿든바 交涉委員은 그동안에 郡當局에 交涉한 顚末을 報告하는 同時에 徹底한 內諾이 업섯다는것을 書面으로 一般委員에게 通知하엿는데 이 通知를 接한 委員及面民들은 더욱 不平이 沸騰하야 去五日午前十時에 姜大燁氏家에 모히여 委員會를 열고 最後外지 反對하기로 決議하는 同時에 面民代表를 郡에 보내 告中面負擔金一千八百圓中 一千圓은 某處에서 寄附한다는 말이 잇스니 이것을 詳細히 調査하고 殘額八百圓도 面民은 負擔치 안키로 하엿다더라(靈光)

安岳基督會館 理想的으로 修理

會員들이 出動하야

安岳基督教青年會館에서는 會館을 九百圓에 買受하엿다함은 旣報한바이어니와 現在會館修理에 着手하엿는데 一般會員들은 獻身的으로 修理에 努力함으로 不日成立될터인데 事務室 讀書室 會集室 運動室 四室로 分하야 會員의 便宜를 圖케한다더라(安岳)

殖產組合을 株式會社로

名稱은 金融倉庫株式會社

全南靈光邑內에 잇는 靈光殖產組合에서는 지난 三月二十七日 第六回定期總會時에 一部組合員側에서 本組合의 事業과 目的이 今年度에 發表된 產業組合令에 適合치 못하니 組合을 解散하고 會社로 變更하자하거니 一部에서는 事業과 目的을 產業組合令에 適合하도록 變更하야 組合 그대로 하자하거니 一時物議가 紛紛하다가 會社로 變更하자는 同意者가 多數이엿슴으로 結局組合을 解散하고 會社로 變更케되바 只今組合解散에 對한 淸算中이며 會社創立에 對한 事務進捗에 大端奔忙中이라는데 그런 組合員全部를 株主로 하고 名稱은 金融倉庫株式會社라하야 事業은 從來에 하든대로 그런 組合과 가티 하는 同時에 地方產物을 有利하게 販賣하는 金融倉庫精米業等을 經營하리라 하며 方今事務進捗中인데 一般人士는 將來에 有望한 事業이라고 하야 速成을 熱望中이라더라(靈光)

第一回 黃海蹴球

來廿一日에

安岳郡龍門面東倉浦修養團에서는 來二十一日二十二日兩日間을 東倉浦그라운드에서 第一回黃海蹴球大會를 開催한다는데 大會에 參加할 選手는 黃海道郡內現籍을 둔 者로 青年團은 該團體의 小學團은 該校長의 證明을 要하며 審判은 現行아!式 競技用球는 五號 競技時間은 小學團五十分 青年團六十分 決勝은 小學團六十分 青年團八十分이라더라(安岳)

頭道溝幼稚園

五月一日에開園式

間島頭道溝朝鮮人民會主催와 商務會及青年會後援으로 幼稚園을 經營하고 多年間 幼稚園媬姆에 經驗이 만흔 徐惠卿氏를 招聘하야 豫定과 가티 五月一日에 開園式을 擧行하고 當席에서 學生을 募集한바 三十餘名에 達한다더라(頭道溝)

彰新學校發展

校舍를新築하고 其他施設도完備

平南江西郡甑山面彰新學校는 距今二十六年前에 設立되여 만흔 人材를 養成한 長久한 歷史를 가진 私立學校인데 同地에 公立普通學校가 設立되엿슴을 不拘하고 現在 在籍學生이 男女二百七十餘名에 達한다는데 昨年四月에 三千餘圓의 巨額으로 校舍瓦家十四間을 新築하여 今年二月에 竣功하엿다는데 同校에서는 校舍新築과 一般設備를 充實히 施設하얏는데 英數學에 一層奮勵하려한다더라(江西)

染織組合發起

德川天道教의 發議로

平南德川郡天道教會에서는 年來 一般經濟가 困難한 바이지나 四月에 共濟染織組合을 組織하기 爲하야 發起하엿다는데 發起人은 左와 如하다더라

李顯奎 方基昌 安泰疇 金振奎 鄭仁鳳 夜星淑 朴用玩 外十三人(德川)

朴氏의 美擧

北青邑朴南德氏는 近日住會面初里에서 兒童教養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생각하고 夜學校舍를 建築한다는 말을 듯고 自己가 買置하엿든 材木을 原價의 半額으로 寄付하엿다고 稱頌이 藉藉하다더라(北青)

清進幼稚園에 新曙光

有志의 同情으로

咸北淸津府新岩洞에 잇는 長老教淸進幼稚園은 設立以後로 經費의 苦難을 備嘗하다가 廢園의 運命에 陷하엿든바 去三日夜에 禮拜堂에서 任員會를 열고 會議한 結果 有志들의 同情으로 다시 曙光이 비치엇다는데 同情諸氏는 다음과 갓다더라

李炳楠一百圓 崔騰成三十圓 鄭在允二十圓 郭楨鵬十五圓 黃子正 崔元鎬 安承泰各十圓 金永協五圓 柳世明二圓 累計二百二圓이라더라(淸津)

江西農會認可

平南江西郡有志金元輔氏外十五人의 發起로 四月二十四日同郡普通學校內에서 同郡農會創立總會를 開하고 一般事項을 附議하야 本道知事에게 認可願을 提出하엿던바 去四月二十八日附로 認可되엿다는데 本郡의 農會員資格者의 總數는 二萬三千八百五十八人에 達하야 同會通常議員은 二十四人이며 特別議員은 八人이라는데 十六區로 分하야 通常議員候補者를 各分區에서 選擧하엿다는데 選擧한 議員候補者들은 來十一日同郡廳會議室에서 同會總會를 開한다고(江西)

●星湖少年會臨總 江原道伊川郡鶴鳳面星湖里星湖少年會에서는 本月一日當地少年會館內에서 第六回臨時總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고

△決議

一、綱領規約實行에 關한件

一、基本財產整理에 關한件

一、會館保存에 關한件

一、懸賞募集賞品買入에 關한件

一、國葬에 對하야 禮行에 關한件

一、任員改選에 關한件(伊川)

◇陽化歌劇大會延期 咸南北青郡陽化少年會主催와 朝鮮日報陽化分局後援으로 어린 少女歌劇大會는 純宗皇帝昇遐로 因하야 陰五月一日로 延期하얏다고(陽化)

●東滿青總地方聯盟 東滿青總頭道溝地方聯盟에서는 豫定과 가티 去五月二日下午二時에 當地青年會館에서 第一回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臨時議長林民鎬氏司會로 經過報告와 巡回委員의 報告가 잇슨後 左記事項을 圓滿히 討議하고 同六時에 閉會하엿다고

△決議

一、會長及部長制를 委員制로 곳칠일

一、少年蹴球大會를 開催할일

一、懸賞雄辯大會를 開催할일

一、各細胞團體에 雜誌를 配付할일

一、本聯盟에서는 各細胞團體를 每月一次式訪問할일

一、各細胞團體는 因襲的習慣을 打破하기 爲하야 討論及講演을 每月三次式開催할일

一、各細胞團體에서는 每月三十日以內로 事業報告할일

一、義務金은 一週以內로 納付할일(間島頭道溝)

●高陽어린이날延期 郡少年少女聯合會에서는 國喪으로 因하야 어린이날紀念式을 五月末日로 延期하고 同會定期總會外지 同日로 延期하엿다고(高陽)

●鳩林少年總會 全南靈岩郡鳩林少年團에서는 事業進行方針을 討議하기 爲하야 지난 四日下午三時에 當地間竹亭에서 臨時總會를 開하고 崔東君의 司會로 經過報告와 會計報告가 잇슨後 諸般事項을 左記와 如히 討議決定하고 同下午六時에 萬歲三唱으로 無事히 閉會하엿다더라

△討議事項

一、樂器購入에 關한件(木浦)

一、教養에 關한件

一、一週年紀念에 關한件

一、少年運動沮害者處置에 關한件

●高敞勞働會定總 高敞勞働會에서는 去五日下午四時에 第九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會長殷武成氏司會로 順序에 依하야 會員點名과 經過報告가 잇슨後 任員을 投票로 選定한 結果 金升玉氏가 會長으로 被選되고 綱領及規約改正을 通過한後 午後七時에 閉會하엿다고(高敞)

◉洪原青年定總 咸南洪原青年會에서는 지난六日午後八時頃에 當地天道教內에서 第七回定期總會를 開하고 諸般事項을 討議하고 委員을 左와 如히 改選하얏다고

△執行委員 朴在鎬 嚴顯基 申東勛 權英奎 朴元鍾 劉義穆 朴昊厚 李在熊 林英郁(洪原)

◇禮山白日場延期 旣報本報禮山支局主催인 禮山白日場은 五月十九日에 開催하기로 되엿던바 今般純宗孝皇帝昇遐하셧슴으로 因하야 後로 延期되엿는바 六月十四日(陰五月五日)에 前報와 가티 하겟고 賞品은 一等二人 懷中時計一個式 二等三人 漢劉詩傳一秩式 三等四人 典故大方一帙式이라고(禮山)

◇寸鐵◇

◇【平昌】 邑內呂某의 다릴사위 總角은 이웃집 二十歲少婦를 다리고 逃走하다가 本夫에게 쌔앗기고 妻家에도 破婚을 當하엿다고 이웃새 사잇다가 장가 못간다는 말이 그러로다

◇【元山】 元山의 繁榮을 圖하기 爲하야 海面埋立을 한다는 府當局者는 海面埋立이 完成도 되기前에 賃金부터 徵收한다고 民怨이 漲天하다지 하느냐 府當局者야 民聲이 天聲임을

◇【洪原】 洪原朝鮮人商店에는 안키쇠파리만 날린다는데 中國人商店에서는 미처 팔지를 못한다 한다 洪原人心도 무던하구나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unday, May. 9th, 1926.

A TRIP TO KOREA

II

And now as we go from Fusan to Seoul we pass by green fields, and little villages where the houses have thatched roofs, and we pass rice fields. And far away in the distance we see, mountains, green and purple. And too, there are some houses which have red or blue tiled roofs, the edges of which turn back like a great lily opening.

And now we have been on the train for about as long a time as it would take us to go from New York to Boston and the train stops in the station at Seoul.

"We will take the trolly car here, and go to my home," says Kong Chong Lee. "This street is called Chongno. It is something like Broadway in New York, but the buildings are not so high. We go past the Post Office and the big Bank. You see that the street is wide and very clean, but it is very noisy with the cars and automobiles and the rickshas. There are a few of the rickshas, here such as they have in other oriental cities, which are light weight carts with two wheels, drawn by men. Now we have gone for about a half a mile beyond the city gate and Kong Chong Lee tells us to get off of the car.

We will follow him through the outside gate of his yard into the garden. The is a pine tree and a ginko tree growing in the garden and lovely red and yellow and blue flowers just as we have in our gardens in America.

英文欄

朝鮮訪問記 (二)

市民陸上競技大會 第二回全馬山

日時 五月九日(陰三月二十八日)午前九時부터
場所 馬山俱樂部그라운드
申請 全五十錢
申請場所 朝鮮日報馬山支局
主催 馬山青年聯合會
後援 時代、東亞、朝鮮三支局

伽倻山海印寺見學團員募集

會費 六圓五十錢
出發時日 五月十五日午後一時(海印寺一泊翌日歸郡)
初集場所 東城町本報支局
申請期日 五月十日外지
申請場所 東城町本報支局
主催 朝鮮日報大邱支局

讀者本位懸賞文藝募集

問題 論文詩感想文散文短篇小說(題隨意)
期日 五月三十一日(陰四月二十日)外지
場所 京義線批峴驛本支局內
發表 六月十五日本報에
賞品 一等 萬年筆一柄 本報無料三個月 二名 / 二等 本報無料三個月 四名 / 三等 本報無料二個月 六名 / 四等 朝鮮日報一個月 十名
主催 朝鮮日報社批峴支局

平北懸賞男女雄辯大會

時日 五月十五日午後八時
場所 龍岩浦幼稚園
申請期日 五月十二日
申請場所 朝鮮日報支局
演士資格 男女二十歲以上
演題 隨意『但原稿를要함』
賞品 一等一人 十八金腕卷時計 二等一人 銀時計 三等一人 ... 副賞은 銀메달 各一介式
主催 龍岩青年會
後援 龍岩浦商務會、東亞、朝鮮兩支分局

全洪原少年文藝募集

期日 五月十五日外지
申請 景浦革新少年會館
制限 論文以外各種으로少年에만限함
施賞 一、二、三、等各一人式으로함
主催 景浦革新少年會
後援 朝鮮日報洪原支局
注意 字句를明確히쓰고文體는簡單히하되住所氏名을明記할일

全北青懸賞雄辯大會

時日 五月十八日
場所 北青青年會館
主催 老德青年會
後援 朝鮮日報北青支局

朝鮮博覽會觀光團募集

會費 每人拾壹圓(申請時添付)
出發日時 六月四日(裡里驛)午後十時列車
回程日時 六月六日(京城驛)午後十時列車
申請場所 朝鮮日報裡里支局
申請締切 六月一日外지
主催 朝鮮日報裡里支局

全北青陸上競技大會

時日 六月十四、十五、十六日
場所 東大門外公設運動場
申請期間 六月四日外지
競技 두래필드、自轉車、脚戲
參加資格 團體、個人、一人이三種以上競技不能
主催 老德青年會
後援 北青勞働聯合會 東亞、時代、朝鮮三支局

第一次葬儀員會
팔일오전에총독부내에서

당한장의 위원장(副淺葬儀委員長)이하동경으로부터 입경한각위원과 재경여러위원은 팔일오전아홉시부터 총독부 회의실에모혀 데일회장의위원회를 열고여러가지 의론한바잇섯는데 그내용은 데개동경으로부터온 위원이 그곳에서 결뎡한바케반사항을 보고하얏슴에 지나지못하고국장의행렬(行列)가라 순차(順次) 통과로뎡(通過路程)등은 오는 월요일 재차회의에서의론하기로 하얏다하며 위선국장의 사무를취급키리 하기에 필요한이상항(三項)을 결뎡한바는아래와갓다더라

一、葬儀事務所는總督府內에置함

一、葬儀事務取扱期日은發表日로부터五十日間인六月十四日까지로함

一、葬儀事務에關한發表는中村文書課長이統一하야擔任함

一日二回望哭
예산농업교의지성

예산농업학교(禮山農業學校)학생전부는 지난이십팔일에 대행뎐하(大行殿下)의비보를접하고 당디후금마산(後金馬山)에올나북 향하고 망곡하게 망곡을한후교장에게휴학하기를청하야몃칠동안휴학을하고날마다오전오후에두번식 동산상에 올라망곡을하엿다는데이외에도군민일동이 떼를가리지안코 몰리여하날을부르짓고 망곡을 하엿다는바사람으로 하야끔더욱 애통케한것은 철모르는어린소녀들의애끗는망곡성이엿다더라

비가와서 모자리(苗床)를 내기에수량(水量)이 충분하야 농가에서는 모종(苗種)하기에 급급하다고(고청)

火田植桑許可
평남덕천군에서

평남덕천군잠상면 내포리(德川郡蠶上面內浦里)는 산골이고거의화뎐경작으로 생활하여 가는데 군당국에서는 식상장려(植桑獎勵)의방침으로 상묘를다수히 부담식혓슴으로 동리구장 동방계(東方桂)씨는 군당국에대표로 관원한곳과 화뎐을치고 생을심으라 하엿다하야 그동리예사람은 화뎐을치고 생을심은후 지금화입허가(火入許可)수속에분주 하다더라(개천)

烏山校生 七日부터登校
목뎍을도달하고

경긔도수원군 오산공립 보통학교(水原郡烏山公普校)학년생도일동의당임교원배척문뎨는두보한바어니와 그후 학교측과생도측의타협으로 문뎨중이든 고천훈도(古川訓導)에게는교수를밧지안키로되야 지난칠일부터일제히동교하야수업중이라더라(오산)

蒙喪中府院君이
다시빗에쪼끼어
철일부터재판을당해

조선귀족으로 차금대왕(借金大王)이라는이름이잇는윤택영(尹澤榮)후는 채권자들에게몰려서그동안북경에피신하야잇섯든바윤택영후의총부채는천부가며략삼백오십만원으로서 대정 십년륙월니래로 사십여회의 변론이잇슨 황금정이뎡목에잇는 도변(渡邊)씨외 십삼명의 오십만원사건과 송달섭(宋達燮)외 한명의 십오만원의사건은 창덕궁권하승하하심으로 말미아마 윤택영후가 도라온것을 긔회로삼아오래간만에 지난칠일 경성디방법원산구(山口)재판장으로부터구두변론이 잇섯스며 차회(次回)는 오는륙월이십일경이라는바 왕대비(王大妃)뎐하 예옵서는 왕뎐하의승하하신후 아즉눈물도 채말으시기전에 또괴로우신 한가지재료가 는섯다하겟더라

觀劇中에盜難
왕십리야채장사가

팔일오후여덟시경에시내인사동(仁寺洞)조선극장(朝鮮劇場)에서구경하던 부외상왕십리(上往十里)일백구번디 야채상(野菜商)하는 표룡학(表龍學)(三三)의주머니속에 드른지갑을 엇더한[소매치기]가훔쳐갓다하야극장은일시 대소동을 이르키엿는데 피해액은 현금십칠원과 액면백여원의약속수형(約束手形)등이라더라

因山當日의 沿路警戒準備로
경긔도지사와경찰부장이 금곡릉침일대를시찰하여

미뎐지사(米田知事)송본내무부장(松本內務部長)안등경찰부장(安藤警察部長)등제씨는팔일오전열시에금곡홍릉(金谷洪陵)부근을 시찰하고 정오이후에도라왓다는데 금번시찰은 장의당일에릉침까지의연도경계와릉침부근의경계방침을 뎡하기 위하야시찰한것이라더라

亨鍵)씨의 가택수색을하고또최씨를동서로인치하얏다더라(황주)

咸南에喜雨
농가의깃붐은지극

함남각디(咸南各地)에는수삭전부터 한재가심한중 더욱바람이심하야경답(耕畓)이불능될뿐더러 씨를부치지못하야 일반은매우 우려중에잇던바 지난이일오후 구시경부터 일반이바라든비는 오기시작하야 익일오전십일시에 끗치엿다가 오일오후십이시에 다시재속하야 충분이왓슴으로농가에서는 대단히 깃거워한다더라(원산)

黃州署事件은 重大한模樣
긔독청년회총무도 인치취됴를밧는중

지난사일밤에 황주경찰서(黃州警察署)에서 사복경관륙인이동군흑교면룡연리(黑橋面龍淵里)로방을가리지안코 달려가 당디권익로(權益魯)박창근(朴昌根)두청년을 검거하는 동시씨의가택을 엄밀히 수색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이어니와 아즉그사건의 내용은 절대비밀에부침으로 자세이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모중대사건에 관련된듯하다하며 지난륙일 정오에는 권고경찰서로부터 사복경관두사람이 권긔동리 긔독청년회총무최형석(崔亨鍵)씨의 가택수색을하고또최씨를동서로인치하얏다더라(황주)

이시에 다시재속하야 충분이왓슴으로농가에서는 대단히 깃거워한다더라(원산)

京釜線延着
사십분이나 연착이되어

팔일오후열시 삼십분에 경성역(京城驛)에도착할 경부선(京釜線)렬차는사십분이나 연착되엿다는데 그리유는 수원부근에서 「가색단」에고장이생겨 그와가티연착되엿다더라

忠州公普生은 五日에同盟上學
『국상이나도학교휴학을아니하고오늘은웬휴학』

충주공립보통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등지시가 업섯슴으로 학생들은 자발뎍으로 일제이휴학까지하엿는데 지난오일은 교장으로부터 하루의 휴학을시키라하엿는데 남녀학생 천여명은 일제이책보를가지고교장에게대하야말하기를국상발표에휴학을아니시키더니 오늘은엇재휴학하느냐고 질문을하며 교수하여달라함으로 교장과 각담임교사들은 학생의요구대로 그날하루를 종일 교수하엿다더라(충주)

마권에 대구디방법원 안동지청(大邱地方法院安東支廳)청수검사(淸水檢事)의손에취됴를밧든바 지난오일에 불긔소로방면되엿다더라(안동)

去四月中의 讀書子七千名
부립도서관통계

사월중에 경성부립도서관(京城府立圖書館)과 종로분관(鍾路分館)에서 독서한인원의총수는 륙천팔백팔십이명이라는데그중일본인이 이천이백 사십오명에 달한다는바 엇더한 까닭인지작년사월보다 긔분간독서자가줄엇다는데 학생독자 사천륙백사십칠명에 달하엿다는바 독서종류의 대부분은 문학(文學)과 어학(語學)이라하며 그다음 은 과학서류(科學書類)라더라

豐西事件 安基守氏放免

경북안동군 풍산면소산동(慶北安東郡豐山面素山洞) 풍서농민회(豐西農民會)간부김긔진(金琪鎭)씨외 팔인이 그동리에 잇는김진한(金震漢)의고소로만흔 회원을 당하엿다 함은긔보와갓거니와 이에 관개한동면 가곡동(佳谷洞) 안긔수(安基守)씨는김진한을 만나그의 행동을타매한것을 협박한다고 검거되야안동경찰서에서 취조를 마치고얼

◇固城甘雨‖경남고성군은 수월전부터 비가오지안어서일반 농가에서는 매우번려중이든바 지난 사월부터삼일동안

惡妾의行悖에 溺水致死한賢妻
경북안동림동면에서

경북안동군림동면수곡동(慶北安東郡臨東面水谷洞)류모(柳某)의부인 남씨(南氏)(四三)는 지난이십륙일 오전세시경에 그동리압냇물속에몸을던져 영원히 죄악만흔이세상을떠나고말엇다는데 그리유를 들으면 그남편은년전부터 동면중평동(中平洞)사는 순도(順桃)(二〇)이란게집과관계를매저가산을불고하고 주야로래왕하든중 금년이월부터는자긔집으로달여다노은후본처를 구박하고 첩만는아이들까지 학대를밧게 되엿스나 남씨는 매일조흔말로 두남녀의 회개하기만 기달이든중 지난이십륙일에 일으러 소행이악독한 순도는 남씨에게대하야 참아귀로듯지못할만한 욕설과 행악을 함부로하는 동시에 그남편도 악첩을동원하야 곤욕을더당케 함으로 약한부인의소견에 이세상에살아 곤욕을당하느니 차라리 죽는것이낫겟다는 생각으로 집안사람이다 잠든틈을타서 지성으로 봉양하든 시어머니와 사랑하든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참혹히죽은것이라더라(림동)

◇賓城에喜雨‖남선디방에는오래동안가뭄(旱魃)으로인하야맥작(麥作)의피해가만흘뿐아니라 곡우(穀雨)가지나도록 비가아니오든바

草笠赤衣의罪囚가 電車타고工事場에
◇……電車타고工事場에……◇

경긔감옥압해서련동어구까지에 궤도차도 십일부터날마다공사할곳을단일터이라고

시내동숭동(東崇洞)공업전문학교(工業專門學校)긔디공사에종사할 서대문형무소죄수(西大門刑務所罪囚)오십인을 오는십일 오전 여섯시반부터 서대문(西大門)압전차정류장으로부터 대절전차로 공업전문학교압 구권차정류장까지송치하리라는데 조선에서는 처음잇는 시험이라하야 형무소에서는 상당한경계를하리라더라

騙取한無賴輩
婚需金을
시골서처음온이는 이런사람조심하라

강원도횡성군서원면번삼리(江原

離禮廳에 一風波
신부는한명인데 신랑은두명이다

경북 진주군동성동(慶北晉州郡東成洞)십륙번디뎐봉강(田鳳岡)(三)의 집에서지난이일초례청에서 신부(新婦) 손선희(孫善姬)(二)에게 신랑(新郎) 둘이덤비여 결혼식장은수라장으로변하고말엇다는데자세한내용을드른면권긔손선희는처녀당시부터자긔집에류숙하고잇던최계홍(崔溪洪)과비밀히정을통하야장래를서로약속하여왓는데 부득이 부모의 말을 엇이지못하고 사랑하던 최계홍을 버리고 부모가허락한 진주(晉州)모에게혼인을하게되엿는바 이것을들은 권긔최는혼인식장에 달려들어 권후권납을 공개하야 그와가티 식장을수라장으로 맨든것이라는데 이로인하야 최는혼인방해죄로 진주경찰서에구금되엿다더라

고 립하(立夏)가되도록 긔후가 평년보다차며 늣서리가 자조와서 생나무움과 채소싹이말다죽게되야 일반농가에서는 대단우려하는중 지난사월부터 련삼일간바람한천엽시 순한비가 와서 모자리하기에흡족하다고(보성)

美人의自殺未遂
남편과싸호고천뎡에서

의주군 고성면태산동사골(義州郡古城面台山洞四谷)사는 고세옥(高世沃)(二七)의안해요의주군의주면 구성동륙오번디(義州面舊城洞)백선북(白善北)(四六)의 넷재딸봉희(奉一)(八)이란이팔의아릿다운 청춘소부는지난칠일오전여덟시경에 자긔남편과 다툼에 자긔본가의주면 구성동에서 다량의 가성소다(苛性曹達)를먹고잠시도탑병 민하는것을발견하고즉시도립병원으로옴겨다가 응급수당을하엿스나본시먹은분량이만흠으로생명에 매우위독(危篤)하다는데 이제그원인을탐문한마에의하면 그가금년음정월달홀남편과 고세옥에게시집을갓스나별로부부사이에따뜻한정이 들기도전에 본가로돌아가오십일동안이나잇다가지난사일그의모친과 가티시가(媤家)로나갓던바 미던한누부부가서로싸호엿데그는날인오월아츰다섯시경에 혼자 자긔친정으로 뛰여왓섯는데 친정부친의 책망을듯고 이러커리로 불쾌함을참지못하야 마침내 그와가티자살하려든것이라더라(의주)

쌀을팔랴고 거지말告發
결국경찰에잡혀

평양부류뎡(柳町)팔십삼번디고청녀(高姓女)는 자긔의딸 손성녀(孫姓女)(八)를사위되는 부내 황금뎡(黃金町)칠십일번디김주진(金周鎭)(三)이 가죽여서대동강물에 던저버렷다고 지난일에 눈물을흘리며 평양경찰서인사상담소에거짓고발을하엿스나 조사한결과 몰래딸을작부로 팔작뎡으로 평양여관 평뎡관에 잡복한것을 지난칠일 권긔김주진이가모녀를놓고 경찰서에와서 설유를 청원하엿다더라(평양)

[illegible]이백삼십이번디 리명재(李明宰)(三)는수일전에혼수흉채차로상경하엿다가 조선은행안에서 엇더한자 새명에게 소지한현금오십륙원을 편취당하고 소관종로소에 당래와서고소를하엿슴으로 종로경관이 현장에 달려가 범인의종적을찻젓스나 이미도망한 뒤임으로 데포치못하엿다더라

悲哀에深鎖된權域

◇新浦‖함남신포야소교회(咸南新浦耶蘇敎會)에서는 지난륙일 오후팔시에 그교회당에서 봉도식을거행 하엿는데 참가원은 무려기백명에 달하엿다하며 지난삼일 오전열시에는 신포공립보통학교(普校)생도오백여명과 관공서원 수십명과 시민수백명이일제히 모히여 봉도식을거행 하얏다고(신포)

◇厚湖‖함남북청군양화면후호리(咸南北靑郡陽化面厚湖里)민들은지난오일 오후여덟시경에 산에올다가서 대정봉곡을하며 요배식을거행 하엿다고(양화)

◇北靑‖북청군차산면우신학교(北靑郡車山面又新學校)에서는 지난사일에 학부형과디방유지와 본교직원학생 합천여명이 전부완장에 상장을부치고 교운동장에서 망곡식을 거행하엿다고(북청)

◇長連‖장련읍내이십여명로파는 지난사일에 봉황산에올라가서 망곡과요배식을 거행하엿스며 당디청년회주최로 지난륙일에 공회당내에서 봉도식을 거행하엿다고(장련)

◇迎日‖경북영일군동촌(慶北迎日郡東村)에서는대송청년회(大松靑年會)주최로지난날일에 남녀로유 수천명이사립대성학교(私立大成學校)에서망곡식을 거행하얏다 하며 당디친목회(親睦會)주최로지난 일일서산상에서 오후한시에 망곡식을거행하얏다고(포항)

◇靈光‖영광공립보통학교에서는 조의를표하기위하야 지난오일부터 삼일간 휴업을하고 근신중이라고(령광)

◇長城‖월평공립보통학교(月坪公普校)에서는오월륙일로 칠일까지진원공보교(珍原公普校)에서는오일부터칠일까지봉도식을 거행한후 림시휴가를하엿다고

◇法聖浦‖전남령광 법성포(全南靈光法聖浦)에서는지난이일오후세시에 시민백여명이인의산(仁義山)에모히여 북을향하야 망곡하얏다고

◇鐵山‖평북텰산(鐵山)에서는지난륙일하오 구시에 봉도식을거행하엿다는데 남녀 천여명이 봉도사를랑독한후 통곡을 하얏다고(텰산)

◇伊川‖이천군학봉면성호소년회(伊川郡鶴鳳面星湖少年會)에서는지난일일에 신진 유년회(新進幼年會)와련합하야 삼십여명이 망곡식을거행하엿다고(이천)

◇金化‖지난일일에읍내압정리에서는 남녀로소 백여인이모히여 각각상장을 부치고망곡식을거행하얏다고(김화)

◇聞慶‖경북문경군가은면왕릉리(聞慶郡加恩面旺陵里)시민삼백여명은 오월일일 동리동산에서 봉도식을거행하고 경북문경군가은면(聞慶郡加恩面)에서 지나간일일에 동면면장이하직원들과 각리구장및시민들 오백명이 모혀서청복식을거행하얏다고

◇尙州‖경북상주군내서면(尙州郡內西面)에서는 면소에서 지나간 일일에면장이하 직원들과 북장(北長)고곡(古谷)리민이백여명이 모혀서 봉도식을 거행하고청복하얏고 내서면(內西面)련원리에서는일일에 동민오십여명이 모히여 봉도식을거행하고 청복하얏고 사벌면(沙伐面)에서는일일에 근동인사 남녀오륙십명이 모히여 봉도식을거행하고청복하얏다고(상주)

◇農岩公普‖경북 문경군 농암공립보통학교에서는일일에 학교직원과 학생일동이 동산에서 봉도식을행하고청복하얏다고(상주)

◇固城公普‖경남 고성읍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륙일에 본교강당에서 망곡식을거행하엿다고(고성)

◇興德公普‖고창군흥덕공립보통학교(高敞郡興德公普校)에서는 학교당국에서휴학하라는말이업슴으로 지난사일 오후세시간에 오륙학년으로부터 봉도의뜻을 표하기위하야 백오십여명이 휴학을단행하엿다고(고창)

◇价川‖평남개천군잠상면사토리(价川郡蠶上面沙土里)대동학원(大同學院)에서는지난사일에 휴학(休學)하고 생도급 학부형케씨는 봉도의 뜻으로검은상표를일제히부치엿다고(개천)

化州江水에 孤魂된靑年
떼목을타고가다가 싸저서참혹히죽어

함남영흥군 선흥면성리(咸南永興郡宣興面城里)화주강(化州江)에서 지난사일오후세시경에 함남영흥군 횡천면산성리(咸南永興郡橫川面山城里)에 주소를둔최문언(崔文彦)(三)이라는청년한사람이 참사하얏다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을들은즉선흥면 검산리(宣興面劍山里)로부터영흥읍(永興邑)으로 보내는 목재(木材)를 수편으로 운반하다가 탓든 목재로부터 떠러저서수심이 십오륙세가량되는데서 헤염치못한까닭에 그대로 참사한것을 당디경찰관 주재소에서현장에 출장하야 시례를검안(檢案)한후에본가로돌려보내엿다더라(영흥)

食刀로自刎
경북상주함창에서

지난사일 오후칠시경에 경북상주군 함창면대조리 김원출(慶北尙州郡咸昌面大鳥里 金元出)(三三)은 식도로자살을한모양인데 그원인을 조사하건대 본시백정으로 생활에 매우곤난을밧든중 그우에 또설상가상으로 부채금이 칠백원가량이나되여서 이세상을 비관함인듯한다더라(함창)

◇自働車衝突‖ 지난일일오후 한시경에 의주군가산면방산동(義州郡加山面方山洞)오례암(烏禮岩)이 란곳에서 창성발신의주행(昌城發新義州行) 자동차(自働車)와 신의주발 창성행 자동차가 충돌되엿스나별로큰손해는업고다만승객을놀내엿슬뿐인데 원인은 신의주발자동차가 오례암굽은길에서 고장이나서 잇는것을 창성발자동차가 알지못하고 나려오다가 그가티충돌된것이라고(의주)

試運中의 自働車가衝突
운뎐수한명은중상

지난오일 오후네시경에 경북포항(慶北浦項) 한문양행자동차 두대(韓文洋行自働車一一二號四六號)는포항읍학산시가디(浦項鶴山市街地)에서 시운뎐을하다가둘이 서로충돌되여 운뎐수한사람은방금위독중에잇다더라(포항)

有夫女誘引하다 本妻와지버려
남의집다림사위

강원도평창군평창면중리최만득(江原道平昌郡平昌面中里崔晚得)의아해 권씨(權氏)(三)는지난삼월이십사일밤에 무단히 집을나가서 종적을 감추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일일에 동군대화면사리천(大和面砂草川)모의집에가서잇다는말을듯고남편인최만득은외두사람이가서차저왓다는데그출가한원인을조사하건대권일부터내외가불화하야남편최만득은자긔안해를돌보지아니함으로항상엽밧게서혼자거쳐하다가 이웃집려모(呂某)의집에다림사위로와잇는황윤식(黃允植)(三)이라는총각이밤이면가만히와서말하기를이집에서는당신을생각지아니하니나와가티어데로 가자고 삼사차례임으로 황총각을 따려나서서 대화면사리천노의집에서 칠일간을 류숙하다가 그와가티 본부에게붓잡히여왓다하며 붓잡으러갓든 만득의사촌 최순길(崔順吉)은 사리천사람에게 붓들리여 사원어치나 술을사주고도술이 부족하다는 리유로구타를 당하얏다더라

言爭끄테 本妻殺害
범인은종적묘연

지난칠일 오전여덟시경에 대구시외 달성군수성면주원동(達城郡壽城面周院里) 팔십사번디 홍윤청(洪允聖)(三六)의안해 김순옥(金順玉)(三六)은 자긔집방안에서 피투성이가되야 무참하게죽엇다는데 이급보를들은 대구서에서는대석(大石)사법주임이하수명과대구디방법원(大邱地方法院)산택(山澤)검사와대구의원(大邱醫院) 의사수명이자동차로현장에급행하야엄밀히 검증을 한결과 죽은원인은 아즉모르겟스나 그이웃집 사람의말을들은즉 지난밤부터 그안해 순옥과싸홈을 시작되야 그익일인 칠일오전다섯시까지 싸홈을 하얏다는데 오전열시가지나도문을 열지아니함으로 이웃집 사람은 이상하게녀여드러가보즉남편되는홍윤청은종적도업고그안해만 피투성이가되야죽어잇는것을발견하고그곳 주재소에 계출한것이라는데 이것으로 보아그의남편의소위가아닌가하야방금대구에서는시내시외에비상선을느리고범인을수색중이라더라(대구)

孫子를求하랴다 함씌타죽은祖父
대판시내에이러난대참극

팔일오전 네시오십분경에 대판천왕사구대도(大阪天王寺區大道)삼정목주정정차랑(中井貞次郞)(六八)의집에서 불이이러나 이웃집 두채를태우고 진화되엿다는데 발화하자 권긔정차랑은 이층에서자는손자행웅(幸雄)(十)을구하랴고 올라갓다가 무참하게도맹화에 싸혀 타죽엇다더라(대판)

行方不明된 大福妻義貯知
불상한남편은부득이 서대문경찰에호소해

시내합동(蛤洞)십이번디 신대복(申大福)(三)은나무장고용사리를하야 근근히모은돈으로 금년봄에 비로소수원(水原)사는 김모(金某)의딸 의저지(義貯知)(二)를 취처하야 자못자미잇게 살어왓섯는데 지난 륙일오후여덜시반에 돌연히 출가한후도라오지아니함으로 도모지알수업서 팔일오후에하는수업시소관서대문서(西門署)에수색원을계출하엿다더라

肥料配付場에 一場風波
지도원의무성의로 이백명이대분로

지난이십구일 오후한시경에 충주군 엄정면목계동운송업 윤진국(忠州郡嚴政面牧溪洞運送業尹鎭國)과 연초경작조합지도원 오의근(煙草耕作組合指導員吳義根)을상대로한 경작자이백여명사이에는 일장풍파가 일어낫섯는데 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권긔지도원 오의근과 운송업자윤진국은 당일오전팔시부터 엄정면가금면(嚴政面可金面)일부경작자에게 이천포나되는비료를 배부할일(肥料配付日割)임에불구하고 외디에출장하야 오지아니함으로 동구역에 주재하는지도원리하도(同區駐在指導員李河道)는아츰부터 모혀드는 이백명경작자의편의를 돕기위하야 권긔윤모의친척에게 그사유를말하고 립회식힌후 창고로부터 비료를내여노코 창고주와 비료배부원이 오기를 기다리든중 오후한시경에야 도라와서 주인업는비료를내여노핫다고지도원 리하도에게 무쌍한욕설을 긔탄업시하며 그일흥에 놋게온

임언반 사과는업시오

과실을가진 오의근과 윤진국은도리혀 긔고만장하야 날오거나 래일오거나 무슨상관이잇느냐고항의로 현장에 모혓든경작자들은 그무리한 언사에 더욱격분하야 하로품삯의 손해를몰어라하며 무책임한행색을 하는등 일변으로 경작자대표를선뎡하야 각경작조합에 면회로써 책임자의무성의와 비행을질문까지하엿다 더라(충주)

青年飲毒自殺
원인은됴사중

의주군 의주면서부동에 본적을 두고 이면권무 동면사무소소사(小使)로잇는김시화(金時化)(一九)란 팔청년은지난륙일오후다섯시에 동면사무소안에서사람의 아편을먹고 고민하자 여러사람이 이를발견하고 도립병원(道立病院)으로 옴겨다가 응급수당을한결과 아직생명에는관계가업다는데 원인은 아직재세이알수업슴으로도방금됴사중이다더라(의주)

◇中央協議會‖영등포(永登浦)파업사건의진상을됴사

國喪成服아니햇다고 行人黑笠을破裂
전남령광법성포에서

지난삼일 전남령광 법성포장날(全南靈光法聖浦市日)황모(黃某)로돌아단니면서 거무갓(黑笠)쓴사람이 눈조선사람이안이냐 국상에웨 성복을아니하엿느냐 하면서 갓을씻지러 하는중에 마츰법성포 로동조합장리형욱(法聖浦勞働組合長李亨郁)이란사람이 지나다가황모에게붓들리여 갓을씻지러 하다가 그만싸홈이나서 로동조합원들이달려들어 황모를무수히 란타하는중 행순하든순사가 싸홈을켜지하고 향보와 리형욱두사람을 주재소로 다리고가서설유한후방송하엿다더라(령광)

麗水에 모루히네蔓延
일반은심히두려워해

전남려수(全南麗水)는우리이생을 근본적으로 박멸하는『모루히네』가 지금까지다른디방보다는 비교적 그류행이적엇섯슴으로 일반은이것을 일종의자랑거리로알고잇섯는바 요사이 불시에려수에도『모루히네』가왕성하며각섬으로부터읍내에『모히』환자가 점점다수히 느러간다는풍설이 성행하야 일반은심히이를 두려하며 경찰당국의엄중취체를기다린다더라(려수)

下級生만은授業
서장이하다수경관출동으로 하급생은만경계리에수업!
南浦第一普校盟休後報

진남포(鎭南浦) 데일공립보통학교(第一普通學校)에서남자부(男子部) 륙년생 일백이십여명은 동교좌좌목(佐佐木)교장을 불신임한다는 리유로 또녀자부(女子部) 륙년생 사십이명은동급(同級) 담임훈도 서내(西內)란일본인남교원이 녀학생에게모욕 행위를하얏다는 리유로각각단정을 굿게하고 지난오일아츰부터 동맹휴학(同盟休學)을 단행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 바어니와 이래사래는 맹휴학생단일백이십여명의통정리 좌좌목(佐佐木)교장의 비행사실을 피차동인한뒤에『무엇보다 도일동이 직접가서 반성(反省)을구하자는데』대개의견이 일치되야 동맹휴학(同盟休學)을단행하엿던 사무실(事務室)로 쇄도하야 교장을치

同窓會奮起
경찰은집회를금지

동맹휴학사건에대하야동교 동창회(同窓會)에서는수일전에 간사회(幹事會)를열고됴사위원(調查委員)을선뎡하야대책을 강구하기에 분망중이든바 지난 오일오후 일곱시부터 동창회림시총회(同窓會臨時總會)를열고 진상보고(眞相報告)와 대책토의(對策討議)를하고저하엿스나 경찰당국으로부터 지난륙일 오전열시경에 집회금지를 당하엿다더라

安訓導를取調
선동의혐의인듯

진남포(鎭南浦)경찰서에서는지난륙일 오후일곱시쯤되여 시내비석리(碑石里)에서 권데일공립보통학교훈도안수(安洙)씨를 다려다가 비밀리에취조를 진행하는중인데사건의내막은비밀에 부치어알수업스나탐문한바에의하면 권긔안수가 교장의불원한에대하야 경긔도 안성읍내(安城邑內)공립보통학교좌직녹

서내(西內)훈도는 일즉이 좌좌목(佐佐木)교장과감정의충돌로 본뎡대데사면한일이 잇슴으로 이번의생도들의 동맹휴학이 혹그의 선동에서생긴것이나아닌가하야 그가티 취조하는것이나 아닌가 한다더라(진남포)

普校生을亂打
학생세리싸홈한것을보고
學父兄의奮起하야謝罪要求
보통학교학생만을나무랜다

경긔도안성공립보통학교(安城公普校)학부형회(學父兄會)에서는 지난 륙일 오전십일시에 그학교안에서 임원회를열고 그곳에잇는안성공립심상고등소학교(安城公立尋常高等小學校)교장 심뎐원삼(深田源三)에게 대하야 경고문을 발송하는동시에 사죄(謝罪)하기를 요구하기로 결의하엿다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지난달이십삼일에 보통학교생도 산본록(山本麓)과 소학교생도 김청수(金淸秀)간에 싸홈을 하엿는데 권긔심뎐교장이 교운동장에 달려와서 김청수를 함부로 란타함으로 이광경을본 보통학교 간호당번되는 훈도김세정(金世鎭)씨가 달려가서 말리는 학교생도의 싸홈은 당국자가 힘써할일이어늘 본교장에게 대하야는 하등의교섭이업시 본교생도를 함부로구타한것은 무리한일이아니냐하야 강경히항의하고 즉시이사실을 보통학교장 도창(島倉)에게 알리게되자 도창교장도역시 권긔심뎐교장에게 항의하엿다는 일이잇섯슴으로 이에대하야 보통학교 부형일동은 물론이요 일반사회는『심뎐교장의 행동은 조선인을 무시한것이요 보통학교를 무시한것일뿐 아니라 조선인을차별하는 감정으로 일본인인 두교장이 조선아동을구타한것이라하야크게 분개하고 즉시 문뎨를 이르키랴하얏스나 그쌔에뒤미처 국상(國喪)이 낫섯슴으로 지금까지 참아오다가 이번에 그와가티 보통학교학부형회에서 임원회를열고 대책을 강구한결과 위선 사죄를 요구하기로 하엿다더라

土地境界로 農夫毆打
마즌사람은고소뎨긔

지난오일 김화군김성면상리(金化郡金城面上里)들가운데 에서는큰싸홈이이러나서한사람은몹시 매를맛고 중상을당하엿다는데 지금그내용을듯건대 동군김성면상리(上里)권창식(金昌植)(三九)의두사람의토디가 상리들가운데 에서 지금그 토디경계를가티하얏스나 권씨는 이에대하야 두차례나 불응하엿스나 불량한 마음을고치지아니하고 여전하 밧둑을허러서 자긔의소유를 만드러오든중 근년에와서는 그지경이 거진업서질지경이엿는데 올해에는 권씨가 밧둑갈다가 소가돌아서는 바람에 보습쏫에 지경이 조곰문허젓다고 리룡순은 자긔의친손 자 리주한(李周漢)(四一)한(漢)이섭(漢)(三)의 세사람을다리고와서 리룡순은 달려드러 여러곳에 중상을당하엿슴으로 권긔네사람을 거러 고소를 제긔하엿다더라(김화)

抱川에强姦未遂
유부녀강간하랴다 고소를만나취됴중

포천군내면 구읍리 일백칠십사번디류동순(抱川郡郡內面舊邑里一七四番地柳東淳)(二三)이란자는 지난륙일 오전한시경에 동리이백십번디김종화(金鍾化)의집에 우거하는김도뎡(金道鼎)이 가장자는틈을타서 그의안해를 강간하랴다가 발견되야 고소를 당하엿다더라

東林市小火

지난륙일 오후한시경에 선천군심천면 동림시(宣川郡深川面東林市)윤득경(尹得京)의집에서 불이나서삼시동안 화염이 맹렬하야 다수인의 진력으로 약한시동안에 종식되엿스나 초가삼간은 반소되고 간일간은 전소되야 손해는 백원에 달하며 원인은미상하나 사랑방굴뚝에서 불이나온듯하다(동림)

非難에싸인 江西水組
이의신립인들에게 가차압하려고수속

두보‖평남 강서수리조합(平南江西水利組合)에서 이의신립인들에게 대한 동조합원의 분한마음을품은 동조합원들은 날이갈사록 더욱강경한 마음으로 이에까지 조합비를 내지아니함으로 동조합에서는 할수업시 가차압(假差押)하려고 방금수속중이라는데 권자에 보도치사 기사압(稱田技師)가 현장을 도사하고 신립(申立)한다하고 당디에출장하엿는데 그러면 그의신립은 무효다는 지 그만 그이의신립은 무효다는 결뎡서를 교부한다는 데 그현장도사가 엇지되엿는지 …

람파휘

우리조선에도 정차도 직업부인이 느러가는 현상이다 ▲그런데 함경북도청진에는 벌서직업부인에대하야 불명예한일이생겻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직업부인이 불명예를 당한것이니 실로 원통한일 다 직업부인의 수효가 만치못한고로 일반의 주목이 집중되는 녀자가되야 가정의 한자항거리가되엿다니 ▲신성한 보통학교에서는 어떤분이 ▲그녀자에게 해를보앗다고 ▲그간의잘못된원은 다시말할것도업거니와 아뭇조록 속히반성하야 원만하게 웃는 동네 아름다운일이되여다